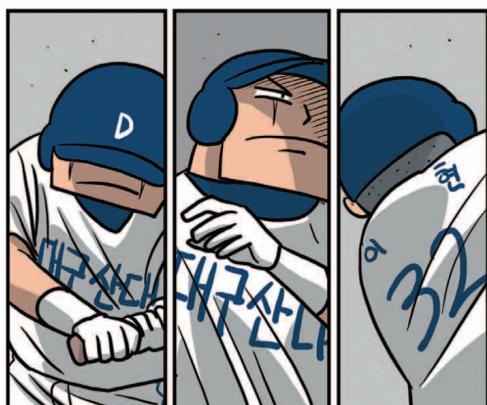


GM 드래프트의 날

By Choi Hoon <13>



※ 'GM 드래프트의 날'은 'sportsdonga.com'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Culture diary Music concert

봄바람처럼 사랑살랑...소울스타의 계절시리즈

●소울스타 '봄에' | 4월30일(오후 7시)·5월1일(오후 6시) | 서울 성수동 성수아트홀 | 14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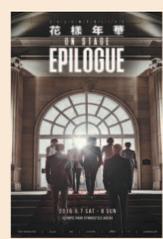
'한국의 보이즈 두 맨'으로 불리는 소울스타의 계절시리즈 콘서트 제3탄. 작년 11월 성황리에 끝난 소극장 콘서트 '가을에', 팬들의 앙코르 요청에 따라 1월 진행한 '겨울에'에 이은 세 번째 소극장 콘서트다. 꽃이 만개하는 봄에 소풍을 떠나는 '봄 소풍' 콘셉트로 밝고 따뜻한 느낌을 연출한다. 봄바람처럼 사랑살랑한 러브송부터, 춘곤증도 단숨에 제압할 재미있는 이벤트까지 준비했다. 공연을 찾은 커플 관객이 실제 결혼을 하면 소울스타가 직접 예식장을 찾아가 축가를 불러주는 특별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연장에 준비된 '빨간 우체통'에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던 이야기를 넣어준 커플에 한한다. 소울스타 측은 "관객 여러분께선 봄 소풍 전날의 설렘만 가지고 오시라. 나머지 '봄 오빠들'이 알아서 준비하겠다"고 했다. 문의 02-564-6604



춤과 노래로 이야기하는 청춘의 다양한 모습

●방탄소년단 '화양연화 온 스테이지:에필로그' 5월7일(오후 5시)·8일(오후 4시) |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 150분

'청춘'을 모티브로 제작한 '화양연화' 시리즈의 마지막 앨범을 내며 준비한 콘서트. 방탄소년단은 작년 4월과 11월 각각 '화양연화' 파트1, 파트2를 발표했고, 5월2일 두 시리즈를 망라하는 '화양연화 영 포에버'를 마지막으로 낸다. '화양연화' 파트1의 '아이 니드 유'를 통해 곧 깨질 것만 같은 위태로운 청춘을 보여줬다면, 파트2의 '런'에선 한층 에너지 넘치고 희망찬 청춘을 노래했다. '화양연화'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했던 '청춘'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방탄소년단의 강점은 퍼포먼스다. 짜임새 있는 춤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이른바 '스토리텔링 퍼포먼스'. '청춘'의 모든 것이 어떻게 춤으로 구현될지 궁금증을 안긴다. 문의 02-446-2690.



서른 살 소녀의 감성...파워보컬 알리의 변신

●소녀를 말하다(부제 : 킬미힐미) 5월13일(오후 8시)·14일(오후 7시)·15일(오후 6시) | 서울 삼성동 백암아트홀 | 120분

뛰어난 가창력과 자신만의 독특한 감성을 가진 알리가 관객을 웃게 하고, 또 울게 할 콘서트다. '킬미 힐미'라는 부제처럼 관객을 흥분시키면서 동시에 위로 주는 공연을 펼친다. 관객을 압도하는 매력적인 가창력과 무대를 장악하는 파워 보컬은 '킬링'이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성미를 가득 담은 서른 살 소녀의 감성은 '힐링'이다. 깊은 내면에 동시에 존재하는 흑과 백의 대조적인 이미지를 알리만의 목소리와 퍼포먼스로 표현한다. 무대 위에서 늘 변화를 시도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기에 늘 노력해 온 알리가 대조적인 음악적 컬러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기대가 쏠린다. 문의 1644-9496.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새 앨범

●루퍼스 웨인라이트 '세익스피어 소네트'

●산타나 '산타나IV'

'팜의 거장' 엘튼 존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송 라이터"라고 칭찬한 루퍼스 웨인라이트의 새 앨범. 세익스피어 사후 400주년을 맞아 세익스피어 소네트(소곡)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곡들이 수록됐다. 영국 밴드 플로렌스 앤 더 머신의 플로렌스 웰츠가 '웬 인 디스그리스'의 피쳐링을 맡았고, 소프라노 안나 프로하스카는 '웬 모스트 아이 워크' '어 유먼스 페이스' 등에 참여했다. 영화 '스타워즈'의 레이 공주 역으로 유명한 캐리 피셔는 소네트 낭송을 맡는 등 유명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유니버설뮤직.

'산타나III'(1971) 이후, 45년 만에 당시 라인업으로 만들어낸 역사적인 신보. 산타나 사운드의 확고한 뿌리가 완성된 1969~1971년에 활약하던, 일명 '클래식 라인업'으로 불리는 멤버들이 40년의 세월을 거슬러 완성한 23번째 스튜디오 앨범이다. 덕분에 듣는 이에게 아련한 시간여행을 경험하게 한다. 열정적이고 자유분방하며 역동적인 동시에 아름다운 소리의 향연은 시공을 초월해 록 축제의 열광 속에 자리하고 있는 듯 차가하게 한다. '암부'를 비롯해 '세이크 잇' '올 어브로드' '포기브니스' 등 16곡이 담겼다. 소니뮤직.

뉴스디자인 | 유진한 기자 haja1787@donga.com

Biz gallery

금호타이어, 신규 글로벌 TV광고 호평



금호타이어가 해외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TV광고 '블라인드 테스트(사진)편'을 공개했다. 이 광고는 블라인드 테스트 형식으로 타이어 브랜드를 가린 채 레이서들이 스포츠카를 주행한 후 성능 평가와 함께 브랜드를 맞춰보는 내용이다. 레이서들은 두 대의 수퍼카를 운전했다. 미국의 대표 스포츠카인 '닷지 바이퍼' 중 가장 고성능 버전인 ACR 모델과 영화 '아이언맨'에 등장했던 '아우디R8'이다. 타이어에 대한 사전 정보나 각본 없이 주행한 후 타이어 성능에 크게 만족한 드라이버들은 두 차량에 장착된 타이어가 모두 금호타이어의 '엑스타 V720'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다. 금호타이어의 '엑스타 V720'은 레이싱에 특화된 고무 소재 및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어 일반 도로에서도 고속 주행 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이다. 지난해부터 '2016 닷지 바이퍼 ACR'에 OE타이어로 공급되고 있다.

잠바주스, 생 과일로 만든 빙수 3종 출시

SPC그룹에서 운영하는 주스 & 스무디 브랜드 잠바주스가 생과일을 활용한 빙수 3종(사진)을 출시했다. 드래곤망고빙수, 파인애플도빙수, 베리 코코넛빙수로 원재료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살린 것이 특징이다. 드래곤망고빙수는 동남아시아의 대표과일인 용과를 활용한 제품으로 생 망고와 생 용과, 라임셔벗이 들어가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파인애플도빙수는 청포도 얼음과 청포도, 파인셔벗이 들어가 청량감을 강조했다. 베리코코넛빙수는 코코넛껍질입음에

코코넛칩, 파인셔벗과 블루베리가 들어가 이국적인 맛을 선사한다. 가격은 각각 1만1500원이다.

오뚜기, '카레 및 향신료 심포지엄' 개최

오뚜기가 후원하고 한국식품과학회가 주최한 제5회 카레 및 향신료 국제 심포지엄이 27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됐다. '세계의 카레, 건강한 인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카레 원료인 강황의 다양한 생리 활성효과와 활용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또한 카레의 유래와 전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계인이 즐기는 카레가 응용요리와 함께 다양하게 전파돼 주목을 끌었다.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한덕환 교수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이 전립선암 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채한정 교수는 카레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강황으로부터 추출된 강황 추출물이 간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효과가 있

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KT 'LTE egg+' 요금제·단말기 선택

KT는 'LTE egg+' 요금제와 단말 2종을 27일 출시했다. 단말 2종은 액정을 통해 데이터 사용량·배터리 용량 확인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선택한 단말로 KT LTE egg+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월 1만 5000원(VAT 별도)에 11GB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LTE 서비스가 가능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며, 와이브로를 백업망으로 활용한다.

SKT 'T페이' 제휴처 확대

SK텔레콤은 오프라인 모바일 결제 서비스 'T페이' 제휴처로 투레주, VIPs, 차이나팩토리 등을 추가했다. 이로써 'T페이' 제휴 대상은 전국 1만 3000개소로 늘어났다. SK텔레콤은 상반기 중 편의점 CU 등을 포함한 2만2000개소로 제휴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제휴처 확대를 기념

해 T페이를 결제 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고객 행사를 29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펼친다.

LG전자 '이지 TV' 5종 첫선



LG전자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이지 TV'(사진) 5종을 출시했다. 특히 5종 가운데 초고화질(UHD) 해상도의 제품 2종도 처음 선보였다. 출고가는 92만~160만원이다. LG전자는 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게 TV를 즐길 수 있도록 신제품에 편의기능을 강화했다. 리모컨 크기를 늘리고 버튼 숫자를 줄였다. 더욱 또렷하게 볼 수 있는 메뉴, 고음역대를 강화한 음향 등을 갖췄다.